

## 아프리카 자원개발 현황 및 시사점

### 1. 최근 현황

#### □ 에너지 · 광물자원의 보고(寶庫)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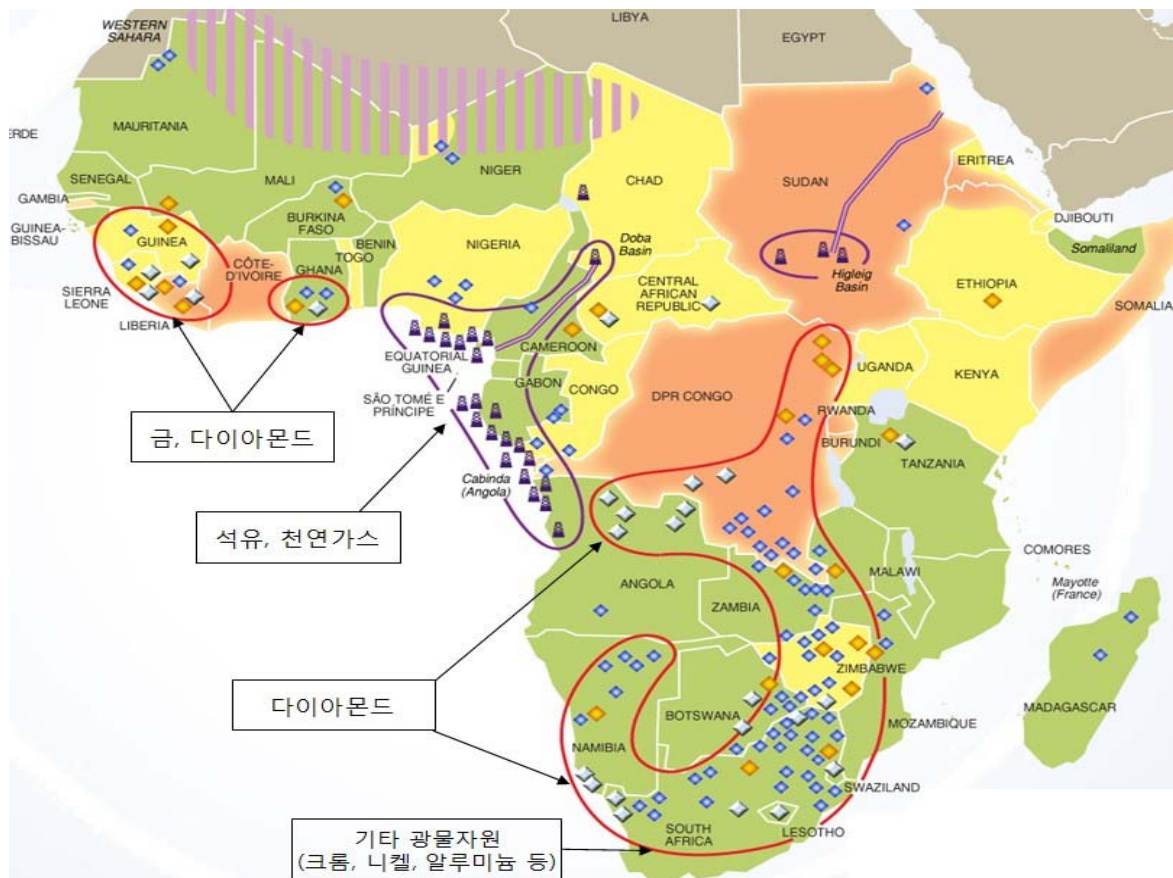
-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가 향후 중동을 대체할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로서 각광받고 있음.
  -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1,256억 배럴(세계 10% 수준)로 OPEC에 가입한 4개국(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의 확인매장량만 99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수단, 이집트 등 OPEC 非가맹국의 성장이 두드러짐.
  - 플라스틱류, 망간, 금 등의 시장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광물자원 시장 전반에 걸쳐 아프리카 국가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아프리카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 플라스틱류(88%), 망간(82%), 코발트(41%), 금(40%), 바나듐(32%) 등
- 한편, 아프리카의 높은 에너지 ·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교적 투자환경이 양호한 일부 지역과 석유, 금, 망간 등의 일부 자원에 국한되어 개발이 진행되는 등 아프리카 대부분의 천연자원은 미개발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표 1> 세계 주요 에너지·광물자원 생산국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아프리카 비중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이란	중국	12.4%
천연가스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란	노르웨이	7%
플라스틱류	남아공	러시아	미국	캐나다	기타	88%
망간	남아공	우크라이나	가봉	인도	중국	82%
코발트	DR콩고	쿠바	호주	미국	잠비아	41%
금	남아공	호주	페루	중국	미국	40%
바나듐	중국	남아공	러시아	미국	기타	32%
세슘	캐나다	짐바브웨	나미비아	-	-	29%
알루미늄	호주	기니	자메이카	브라질	중국	26%
티타늄	중국	호주	남아공	인도	노르웨이	17%
크롬	카자흐스탄	남아공	인도	미국	기타	11%

자료: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2009. 6), 日本貿易會(2008. 4)

<그림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광물자원 현황



자료: UNEP/GRID 2006

## 2. 아프리카 자원개발 지연의 주요요인

### □ 열악한 경제 인프라

- 지구상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된 특성을 지닌 아프리카는 도로, 전력망, 통신 등의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 자원개발 대상 지역이 수도 또는 주요 항만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2008년 12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의 중동 국가들이 상위 50위 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반면, 아프리카의 경우,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179개국 중 100위 이하의 취약한 수준을 기록하며 도로, 식수, 보건 등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매우 열악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향후 중동을 대체할 아프리카의 산유부국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조차도 도로 포장률이 15%에 불과하고,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가 6명에 그쳐 154위의 낮은 인간개발지수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경제 인프라 환경이 동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 아직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투자환경

- 19-20세기경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겪어온 아프리카는 1970-80년대 광산 국유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2000년대에는 자원통제를 강화하는 등 아직까지 자국기업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개혁조치를 취해온 데에 반해, 아프리카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아직까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8년 6월, 자원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네덜란드의 셸(Shell)사가 운영해오던 남부지역의 오고니(Ogoni) 유전에 대한 운영권을 박탈하여 국영회사인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NNPC)사에 이전한 바 있으며, 앙골라도 국영 석유회사인 Sonangol사가 모든 프로젝트의 개발에 대해 다수의 지분을 갖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방어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사회의 반감 또한 투자 부진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 가지 사례로 마다가스카르의 대우로지스틱스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을 들 수 있음. 2008년, 대우로지스틱스는 라발로마나나(Ravalomanana) 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총 130만 ha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여 옥수수 재배 및 야자유 생산을 추진해왔으나,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해 강한 애착을 지닌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정부의 농지개발 사업 추진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라조에리나(Rajoelina) 대통령 또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작지를 상실할 것이라며 본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지난 3월 대우로지스틱스와의 농지개발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 만성적인 정정 불안과 정부의 투명성 결여

- 아프리카는 국가 간, 정치·사회적 세력 간 분쟁이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해 잦은 대륙으로서 정정 불안이 만성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석유개발 및 영유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 앙골라 - 콩고, 카메룬 - 나이지리아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Niger Delta) 지역에서의 정부군 - 반군 간 분쟁 등 국내 세력 간의 마찰 또한 상존하여 유전개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자원 수익금이 정부 재정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정부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이 쉽게 수정되는 경우마저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라발로마나나(Ravalomanana) 전 정부의 과도한 대외 개방정책 추진이 라조엘리나(Rajoelina) 정권 출범과 더불어 다소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봉에서는 봉고(Bongo) 전 대통령이 프랑스 국영석유회사로부터 뇌물수수의 의혹을 받는 등 정부 - 주요기업 간의 비리 또한 상존하여, 아프리카에서는 정권 교체에 의해 국가의 정책 방향이 급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 같은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오랜 내전으로 인해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DR콩고에서는 최근 광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장기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내 정정불안과 정부 정책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가 불가피한 실정임.

### 3. 전망 및 시사점

#### □ 아프리카의 자원개발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아프리카의 열악한 투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 잠재력에 대한 높은 기대에 힘입어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Metals Economics Grou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3.77억 달러에 불과하던 對 아프리카 탐광(探鑛) 투자액은 2008년 5배 수준인 18.83억 달러(세계 총 투자액의 13.7%를 차지)까지 증가하였음. 금속별로는 금(7.57억 달러), 비금속(4.21억 달러), 다이아몬드(4.69억 달러), 기타(플라스틱 등, 2.35억 달러) 순을 기록함.
- 국가별로는 기존에 유전 발견 등 자원 매장량이 확인된 국가는 물론, 천연자원의 탐사·채굴 실적이 전혀 없는 신흥국가들의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
- ‘2008 아프리카 광업탐광 투자세미나’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탐광 프로젝트 197건 중 약 60%가 타당성검토(F/S) 실시 이전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확인됨.

<표 2>                    자원개발을 추진 중인 아프리카 신흥국

지역	국가(계획중인 국가 포함)
동부	우간다, 부룬디, 탄자니아, 모잠비크, 르완다, 잠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등
남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
중부	카메룬, DR콩고, 차드 등
서부	가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말리 등

자료: 한국석유공사, BBC News 등으로부터 필자 정리

□ **역내 경제공동체 활용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및 위기관리 노력 필요**

- 향후 성공적인 아프리카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국 보호 주의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와 같이 비교적 외국인투자에 과감한 정책 도입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역내 경제공동체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세계 금융위기 등 외부적인 충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노력을 경제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2008년 10월, COMESA, SADC 및 EAC는 공동으로 자유무역지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08년 8월에는 SADC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족, 2010년까지 관세동맹을, 2018년까지 공동통화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아프리카 역내 경제공동체의 협력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3> 아프리카 주요 경제공동체 현황

경제공동체	해당국가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부룬디, 코모로, DR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19개국)
서아프리카대국경제공동체 (ECOWAS)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15개국)
남부아프리카공동체 (SADC)	잠비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모잠비크, 앙골라, 레소토, 말라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DR콩고(14개국)
중부아프리카대국공동체 (ECCAS)	앙골라, 가봉, 카메룬, 콩고공화국, DR콩고, 사오토메 프린시페, 적도기니, 차드, 중앙아프리카, 부룬디, 르완다(11개국)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 (CEMAC)	가봉, 카메룬,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차드, 중앙아프리카(6개국)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5개국)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5개국)

○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국들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아프리카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두터운 협력 없이는 성공적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따름. 특히 농업투자 부문에서는, 중동국가 등 대형 투자국들의 아프리카 내 농지확보 노력이 결국 투자유치국의 식량부족 심화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신(新) 식민주의’적 형태의 투자라는 비판마저 제기<sup>1)</sup>되고 있어, 투자국 - 수혜국 간 신뢰와 협조적인 기반 마련이 성공적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하겠음.

- 최근 빈곤퇴치 민간기구인 DATA(Debt, AIDS, Trade in Africa)가 발간한 보고서는 세계 선진 8개국(G8)이 세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

1) 세부 내용은 “중동 주요국(GCC)의 해외 농업투자 현황 및 전망” 참조(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투자정보(OEIS), 2008. 9. 12)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250억 달러 중 불과 3분의 1 정도만이 현재까지 지원되어 G8의 소홀한 이행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음.

- 아울러, 우리나라가 자금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세계 광업 메이저 업체, 그리고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총력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수송 인프라(도로, 항만 등), 전력망 구축 등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현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상호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mailto:yeliekim@koreaexim.go.kr)